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위엄과 빛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고 세례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중)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내리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취하셔서 주님, 곧 열방의 하나님을 섬김에 유용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주현절 성만찬>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섰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전도시리즈(5) 침묵할 수 없는 기쁨: 굶주린 자들의 발견” / 왕하7:3-9; 요이11:1-4; 요1:38-39 >

✠ 교회 소식 ✠

㉠ 예배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예배의 은혜는 교회 담장 안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사랑과 능력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 예전예배학 제2강 : 15일(주)로 한 주 연기합니다.
- 설 가정예배 순서지 : 필경대 위에 비치

㉡ 전체제직회 : 8일(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공동의회 : 15일(주) 2부 예배 후, 본당

㉢ 2026년 안동장학생 선발

- 대상 : 청년부(대학생)
- 제출서류 : 지원서(사무실 비치)
- 신청기간 : 2월 15일(주)까지

㉣ 모임

- “풍성한 삶의 첫걸음” : 오후 1시 30분, 소가재(사랑의빛교회 탐방팀 참관)
- 구역모임 : 8일(주) 2부 예배 후, 구역별 지정장소
- 교육국협의회 : 8일(오늘) 12시 30분, 3층 청년부실
- 독거노인반찬배달 : 12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 한빛기도회 : 13일(금) 오전 11시, 기도실

㉤ 향존직 피택자교육

- 제 9강 : 10일(화) 저녁 7시, 회의실
- 제10강 : 15일(주) 오후 1시(설연휴관계), 회의실

㉥ 창립 117주년 기관별 찬양발표회 : 3월 1일(주) 오후 3시, 본당

- 22일(주)까지 신청서 작성(사무실 비치)

㉦ 청년부수련회 : 21일(토)~22일(주) 양평 푸른정원펜션, ‘내게로 와서 쉬어라’

㉧ 식당봉사

- 8일(주) : 박금희 황경선 / 방승주 이강민
- 15일(주) : 박선숙 장금녀 최영란 / 이호진 정찬욱

㉨

수요성서세미나 : “제2성전기”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성서 특강)

- 일시 : 3월 4일·11일·18일·4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총4회)
- 강사 : 김근주 목사
- 대상 : 교회학교 교사 및 모든 성도 (*저녁식사 제공)

1부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무너진 세상, 그 길 위에 선 사마리아인

녹 10:30-37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보며 분노하거나 냉소합니다.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을 이대로 두는가?"라고 묻지만, 정작 우리 역시 나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피해 가는 '현대판 제사장'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우리(인류)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상처 입은 이웃을 싸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 [현실 직시] 최근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돌아볼 때, 당신을 가장 분노하게 하거나 무력감(냉소)을 느끼게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 [적용과 실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의무와 자신의 안전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피해했습니다. 혹시 내 삶에도 "바빠서, 휘말리기 싫어서, 나랑 안맞아서"라는 이유로 일부러 피해 다니는 이웃(직장 동료, 가족, 소외된 자)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할 작은 손해나 수고는 무엇일까요?



주현절 후 다섯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마 5:14,16)

(목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밝은 소망을 우리가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42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시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만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이 주의 밝은 빛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했으며,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505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미가 6:8(1296) 임채호 피택 안수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21(257) 임채호 피택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묵상> “주께 간구하나이다” 김 진 성도 오르간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0:30-37(110) 유란임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무너진 세상, 그 길 위에 선 사마리아인』 ..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유란임 권사

찬 송 516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